

황화수창 시고의 작성과 간행

김덕수*

1537년 황화수창을 중심으로

초록 1537년 공용경과 오희맹, 두 사신은 한양에서 조서를 반포하기 전까지 예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집사 정사룡 일행과 수창하지 않았다. 두 사신은 같은 곳에서 같은 체재로 시를 지으면서도 다른 운자로 각자의 작품을 주로 찬술했고 작품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다. 오희맹이 압운을 잘못하자 조선 문인은 착오를 묵인하지 않고 중첩된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어 시를 지었으며 심언광은 장편 배울 전별시를 선창함으로써 문학적 자부심과 대결의식을 드러냈다. 황화수창 자리는 양국 문사가 필력을 뽐내는 현학의 공간이자 조선이 국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황화수창은 시고를 통해 이루어졌고 찬술 시기에 따라 시고가 정리되었다. 개별 『황화집』과 1608년 간본 『황화집』에는 원시고 형태가 거의 그대로 구현된 반면 1773년 통합본 『황화집』은 편집을 거치면서 시고 형태가 상당 부분 해체되고 유의미한 정보가 누락되기도 했다. 사신의 시편은 두목(頭目)이 대필하여 오류가 많았으므로 양측 모두 원고 교정에 만전을 기했다. 정사룡은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원고의 편차와 교정을 마쳤다. 정사룡이 복명하며 정사본을 올리자 중종은 교서관에 간행을 명했고 이후에도 홍문관대제학, 원집사와 중사관들이 교정에 참여했다. 당시 정사룡은 수본(手本)에 의거하여 원고를 수정했는데 『황화집』 1차 간본을 중국에 보내면서 사신의 열람과 교정을 기다렸다. 간행상 오류로 인해 『황화집』을 누차 간행하거나 이미 귀국한 사신이 『황화집』 교정에 참여한 사례도 여럿 보인다. 『황화집』 간행 시 교정에 힘썼지만 원고 자체가 불완전하고 일정이 촉박한 탓에 완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주제어 『황화집』(皇華集), 황화수창(皇華酬唱), 원집사(遠接使), 시고(詩稿), 편차(編次), 교감(校勘), 간행(刊行)

1. 머리말

명나라 사신을 맞이할 때 조선에서 유독 고심한 부분은 성공적 황화수창이었다. 소중화로서 자처하던 조선의 문풍을 선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원접사와 관반 임명 시 내로라하는 문사를 엄선한 것은 당연지사다. 황화수창은 문학 활동이기보다는 막중한 외교 행위에 가까웠다. 이러한 황화수창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내용이 지극히 사대적이고 칭송 일변도라는 점과 대작(代作)의 관행으로 찬자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부정적 측면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되던 조선과 중국 간 문화 교류의 채널이라는 점, 황화수창을 염두에 둔 각종 문헌의 간행과 시학의 장려가 조선의 문예 수준을 최고조로 이끌었다는 점은 황화수창의 긍정적 측면이다.

본고에서는 1537년(중종 32) 황화수창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되 작품 내용이나 문예적 측면이 아닌, 수창 방식과 시고 작성 및 수정, 『황화집』 간행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실 양국 문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창했는지, 수창 과정에서 시고를 어떻게 작성하고 공유했는지, 개별 시고를 어떻게 정리하고 교정하여 간행했는지 등의 미시적 부분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1537년 황화수창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여타 황화수창에 비해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정사 공용경과 부사 오희맹이 원접사 정사룡 일행과 수창한 작품이 『황화집』 5책 분량으로 남아 있거니와 제5책에 실린 간찰에는 수창 원고의 교정과 간행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보인다. 아울러 당시 원접사 일행이 사신을 접반하며 연로에서 견문한 사항을 기록한 일기가 현전한다. II장에서는 두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서 한양에 들어올 때까지, 한양에서 일주일간 체류하다가 회정할 때까지, 귀국길에 올라 국경을 넘을 때까지 세 기간으로 분절하여 사신의 시문 찬술 및 황화수창의 특징적 면모 등을 시기순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III장에서 당시 제작된 시고의 형태, 시고의 작성과 등사 과정, 시고의 교정과 간행 양상을 고구하겠다. 관련 자료가 영

성하므로 전후에 이루어진 여타 황화수창의 사례까지 논의의 범주에 포함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황화수창의 미시적 부분과 문 화사적 의의가 일정 부분 해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1537년 황화수창 개황

『황화집』 판본은 거칠게 3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황화수창 직후 에 간행된 단회 『황화집』이 있고, 1608년(선조 41)에 기존의 단회 『황화집』 을 저본으로 그 오류를 일부 수정하여 인행한 1608년 간본 『황화집』이 있 으며, 1773년(영조 49)에 24종의 기존 『황화집』을 통괄하되 구성을 재편집하 여 간행한 통합본 『황화집』이 있다.¹ 본 장에서는 1608년 간본 『황화집』²과 통합본 『황화집』³을 주요 텍스트로 활용하겠다.

두 사신은 1537년 2월 20일 압록강을 건너 3월 10일 한양에 도착하여 근정전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을 치를 때까지 부단히 시편을 제작했다. 특이하게도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원접사 일행과 한 번도 수창을 시도하지 않았다. 조선 국왕을 만나 조서를 반포하기 전에 조선 신료와 사사롭게 수 창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⁴

1 김덕수는 서거정의 1476년 황화수창이 수록된 『황화집』을 중심으로 판본 간의 차이와 특 징에 대해 상술한 바 있다. 김덕수(2021), 「서거정의 황화수창과 문학적 대결의식」, 『진 단학보』 136, 진단학회, pp. 195-200. 본고에서는 1608년 간행된 『황화집』은 ‘1608년 간 본 『황화집』’, 1773년 간행된 『황화집』은 ‘통합본 『황화집』’으로 지칭하겠다.

2 장서각 소장본, K4-366.

3 장서각 소장본, K4-380.

4 吳希孟, 〈大同江曉發 聞角〉【途中鄙作亦多, 但賢王未接, 私相唱和, 非禮也. 聊紀所歷行跡, 茲錄請正. 荷荷】. 오희맹은 〈朝天錄序〉에서 “조서를 펼치기 전에 감히 선창할 수 없었다. 한양에 도착하고 나서 시를 지으니 정사룡이 화답했고 반복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으니 정사룡 역시 화답했다. 이에 시인의 풍모가 있음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 말하기도 했 다. 『황화집』 권22, 오희맹, 〈朝天錄序〉. “聖詔未開, 不敢唱也. 迨國酒發, 鄭子廣焉. 旋復續

통상 정사와 부사의 작시 양상을 살펴보면 정사가 제작한 시편에 부사가 화운하여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공용경과 오희맹은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제재로 시를 지으면서도 차운한 경우보다는 상이한 운자로 각자의 작품을 찬술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213편의 시편 가운데 이전 사신의 작품에 차운한 것이 10여 수다. 이전 사신은 왕창(王敞), 예겸(倪謙), 동월(董越), 당고(唐阜), 사도(史道), 장녕(張寧), 진감(陳鑑), 김식(金湜)으로 왕창 시에 6수, 예겸 시에 2수, 동월 시에 4수를 차운했고 나머지 사신의 시편에는 1수씩 차운했다.⁵ 참고로 두 사신의 작품, 특히 공용경의 작품은 훗날 조선을 찾은 조사가 시편을 지을 때 주요 차운 대상이 되었다.⁶

두 사신은 서로의 시편에 차운한 사례가 매우 드물거니와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희맹이 봉산(鳳山)에서 <동선관에서 묵으며 서봉정에 오르다>〔宿洞仙館，登棲鳳亭〕⁷를 짓자, 공용경은 간만에 차운 시를 짓더니 “황문 오희맹이 보내온 운자는 원래 ‘포’(抱)와 ‘초’(草) 두 글자였다. 근자에 그것을 새긴 시판을 보니 ‘포’를 ‘초’로 바꾸고 ‘초’(草)를 ‘조’(藻)로 바꾸어 원래 운자와 달랐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차운이라고 말하겠는가! 바뀐 운자에 맞춰 수정하고 싶어서 곧 완성했으나 오희맹이 ‘초고와 같은 운자로 수정하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⁸라는 후지를 달았다. 두 사신이 각자의 시고를 따로 정리했으며

缺，鄭子亦廣焉，方以爲有詩之風。”

- 5 『패관잡기』 권3에 “금사 오희맹이 매양 가마에 기대어 太史 唐阜의 『황화집』을 보고 있었다.”가 보인다. 두 사신 모두 전례를 상고하고 작시를 준비하기 위해 이전 『황화집』을 휴대하고 수시로 읽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6 2년 뒤 1539년(중종 34) 화찰과 설총이 왔을 때 원접사 소세양이 중종에게 올린 書狀에 “두 사신이 지은 시는 모두가 공용경의 시를 차운한 것이었습니다.”가 보인다〔『중종실록』 34년(1539) 4월 7일].
- 7 1608년 간본 『황화집』 권1.
- 8 1608년 간본 『황화집』 권1, 공용경, <館之東數十武，青松成林，下結茅亭，臨芳沼，坐其中而樂之，命之曰栖鳳。龍津賦詩，余次其韻。…한시 생략…【吳黃門來韻，原是‘抱’·‘草’二字，近見其所刻，易‘抱’爲‘草’，易‘草’爲‘藻’，與原韻不同。若如此，何以謂之次韻！欲改就其

간간이 차운을 위해 해당 시편을 보여줬음을 추정할 수 있다.⁹

오희맹은 한양에 도착하여 <조서가 근정전에 도착하자 국왕이 문위례를 설행하다>¹⁰를 짓고는 한시 뒷부분에 이 시편의 수신자와 간략한 후지를 적었다.¹¹ 오희맹이 이 시를 지은 뒤 두 사신은 숙소인 태평관에서 정사룡, 관반 심언광 및 영접도감 관원들에게 그간 연로에서 지은 213수의 시편을 정리한 시록을 보여 주었고 정사룡과 심언광은 다른 운자로 칠언율시 두세 수씩을 지어 올렸다.¹²

이후 한양에 머무는 동안 태평관 연회, 대성전 알성, 한강루 연회, 경희루 연회, 근정전 연회, 한강 유람 등을 거치며 작시에 임했는데 이것은 기존 전례와 대동소이하다. 셋째 날 성균관에서 선성묘(先聖廟)를 배알한 뒤 성균관 유생에게 보여준 시편 등은 추후 귀국하는 길에 보산관(寶山館)에서 찬술한 것이다.¹³ 물론 해당 시편에 대한 정사룡의 차운작도 나중에 지은 것

後易之韻，則業已成之，吳黃門前云，自欲改同原稟，不知果如何也】.

- 9 오희맹은 귀국 길에 鳳山 洞仙館에서 <樓鳳亭>을 다시 짓더니 시제 아래에 “鳳山 객관에 정자 하나가 있는데 만 그루 소나무 사이에 있다. 龔太史가 정자에 오르더니 ‘樓鳳’이라고 명명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우연히 ‘草’자로 완성했다가 나중에 ‘藻’자로 바꿨는데 공태사가 이미 화윤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므로 다시 보충해 짓는다.”【鳳山館有松萬株中開一亭，龔太史登亭，名曰樓鳳。予于坐間，偶成得‘草’字，後改爲‘藻’，不知太史已和之矣。故補之】라고 적었다. 이 기사는 두 사신 간 작시 양상의 일면을 보여주는데 서로의 시고에 대한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 10 1608년 간본 『황화집』 권1, <聖詔至勤政殿，國王行問慰禮>【二首】.
- 11 “沈·鄭二曹長并列位都監賢契均此.【右沿途兩稟，總二百十三首，通錄出示于太平館】.” 통합본 『황화집』에서는 “右沿途兩稿，總二百十三首. 沈·鄭二曹長並列位都監賢契均此.”로 축약했다.
- 12 1608년 간본 『황화집』 권1, 심언광, <伏觀辱示道中之作，動盈卷軸，讀來如得拱壁，令人不忍釋手，謹成三律，呈兩大人文几，聊表謝忱，非敢爲詩. 伏希雷覽>; 정사룡, <伏觀途中諸作通錄見示，不勝榮幸，誦味之餘，猥奉短章，用表掄揚>.
- 13 『황화집』 권18, 공용경, <謁宜聖廟，坐明倫堂，示諸生>【回程時，到寶山館，錄示】; 오희맹, <成均館，謁先聖廟，次董圭峯學士韻>【回程時，到新安館，錄示】. 두 사신이 찬술한 산문은 『황화집』 마지막 권에 따로 수록했는데 3월 12일 공용경은 성균관에서 <謁孔子廟記>를 지었다[『황화집』 권22].

이다. 오희맹이 칠언고시 <연경회루>(宴慶會樓)와 오언고시 <연근정전>(宴勤政殿)을 지을 때, 동일한 글자를 두 번 사용해서 운각으로 삼자, 심언광과 정사룡은 중첩된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어 시를 지었다.¹⁴ 명 사신의 착오를 묵인하지 않은 것이다.

명 사신은 3월 17일 한양을 떠나면서 태평관, 모화관, 흥제원 등에서 전별시를 제작했다.¹⁵ 이때 공용경이 회문체 2수와 동파체 3수를 짓자¹⁶ 원접사와 관반들도 곧바로 차운했다. 특히 심언광은 1460년(세조 6) 조사로 왔던 장녕의 칠언배율 60운 장편시에 차운하여 전별의 뜻을 피력했는데¹⁷ 이것은 1537년 황화수창에서 이루어진 조선 문인 최초의 선창 시도다. 물론 두 사신은 곧장 차운하지 못했고 숙녕관과 의순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차운작을 꺼내 놓았다.¹⁸ 심언광이 견지했던 문학적 자부심과 대결 의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다.¹⁹

14 예컨대 오희맹이 지은 오언고시 <宴勤政殿>의 운자는 張-塘-光-香-堂-芳-長-簧-岡-鄉-棠-光-方이다. 이에 정사룡은 “‘光’자가 겹쳐서 압운되었으므로 운자를 바꾸었습니다.”[光字疊押, 故變韻]라는 주석을 달고는 뒤의 ‘光’을 ‘章’으로 바꾸어 차운했다. 심언광도 칠언고시 <宴慶會樓>에 차운할 때 “‘城’자가 겹쳐서 압운되었으므로 ‘成’자로 고쳐 썼습니다.”[城字疊押, 故改下成字]라는 주석을 달고 ‘成’자를 운자로 삼아 지었다.

15 3월 17일 태평관 전별연에서 공용경이 중종에게 『황화집』 편찬과 서문 찬술자에 대해 묻자, 중종은 “『황화집』은 으레 강을 건넌 후에 詔使 및 陪臣들이 지은 것을 모아서 인출하여 보냅니다. 서문은 좌의정 김안로가 지을 예정입니다.”라 답했다. 『황화집』 간행에 대한 공용경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중종실록』 32년(1537) 3월 17일].

16 『황화집』 권19, 공용경, <出漢城, 戲作回文體>; 공용경, <效東坡體>.

17 『황화집』 권19, 심언광, <叨陪數日, 屢奉清塵, 歸轄將脂, 不勝黯然. 謹次張黃門登大平樓七言排律六十韻, 呈兩大人詩案, 聊備行驢, 伏希和教>.

18 『황화집』 권19, 공용경, <太平館, 次張掌科六十韻, 兼答沈判書來意>【回程時, 到肅寧館, 錄示】; 오희맹, <登太平樓, 次張方洲七言排律六十韻, 錄似吏曹沈判宰漁村·刑曹鄭判宰湖陰>【回程時, 到義順館, 錄示】.

19 한강을 유람할 때 공용경이 칠언율시 2수를 짓자 당시 동행했던 조선 문사들은 모두 차운시 2수를 지었는데 심언광만 유독 2수씩, 도합 4수를 제작했다. 이날 오희맹이 칠언율시 2수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었다(『황화집』 권19, 공용경, <國王遣議政判書諸臣, 侍子遊漢江, 累饋酒肴, 口占二律, 以紀其勝>; 오희맹, <國王開宴漢江樓, 遣諸臣執事, 是日雨而復晴, 蓋亦天從王命也. 已而放舟中流, 東南盡美, 偶成二律, 次雲岡學士韻>). 문학적 자부

두 사신과 반송사 일행은 벽제, 개성, 황주, 평양, 숙녕 등을 경유하여 의주에 이를 때까지 작시에 주력했다. 두 사신은 왕창, 김식, 장성, 진감의 시편에 1수씩 차운했고²⁰ 사도의 작품에는 3편을 차운했다.²¹ 사도는 오히려 맹의 스승으로 여겨진다.²² 사신과의 황화수창은 주로 반송사 정사룡이 담당했는데 공용경이 숙녕과 의순에서 사(詞)를 지었을 때 정사룡은 화답하지 못했다.²³

김안로와 윤인경은 전위사(餞慰使)로서 벽제에 다녀오더니 “사신들이 한강 유람 시 지은 시편이 영성했으므로 사람들 모두 쉽게 여겼으나 요사이 지은 글을 보니 진실로 글을 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회정 때는 시문 찬술에 몰두하고 있는데 두 사신이 지은 것을 원접사 혼자서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중략… 이희보와 조인규로 하여금 원접사와 동행하며 돕게 하소서.”라 복명했다.²⁴ 조선에서는 명 사신이 제작한 시편의 수준을 수시로 평가했고 필력이 만만치 않은 두 사신이 귀국 시 시문 찬술에 주력하자 필력이 뛰어난 두 사람을 추가 파견하여 원접사의 수창을 돕게 한 것이다.

심과 대결의식이 선창이나 다작 차운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연려실기술』에서 『기재잡기』를 인용하며 “詔使가 돌아갈 때 송별시를 짓는데 심언광만이 2수를 더 지어 주었다. 아마도 시에 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浮誇함을 비웃었다.”라 했는데 심언광이 2수를 더 지은 것은 전별시가 아니라 한강 유람 때 지은 시다(『연려실기술』 별집 권5, 事大典故, 〈僉使〉).

- 20 『황화집』 권20, 공용경, 〈東坡館, 翫月, 用王司馬韻〉; 권21, 공용경, 〈登肅寧館樓, 次金·張二使者韻〉; 권21, 공용경, 〈重登百祥樓, 次陳給事韻〉.
- 21 『황화집』 권20, 공용경, 〈碧蹄, 和史鹿野韻, 敍別金國相〉; 오히맹, 〈過坡州館, 見衆芳搖落, 次子師史鹿野韻〉; 권21, 오히맹, 〈重過納清亭, 次子師鹿野韻〉.
- 22 오히맹은 시제에 사도를 적을 때마다 호칭 앞에 ‘子師’를 붙였다.
- 23 『황화집』 권21, 공용경, 〈重過肅寧, 三春將殘, 客途荏苒, 不自覺也, 作惜暮春數闋〉; 공용경, 〈至義順, 懷田園, 作木蘭花慢一闋〉. 『鶴山樵談』과 『稗官雜記』에서는 歌詞의 성물이 율사와 달라서 조선 문인이 짓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뒤 정사룡이 차운하지 않음으로써 끝내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24 『중종실록』 32년(1537) 3월 18일.

오희맹은 평양 전위사 허항(許沆)에게 전별시를 지어 주며 시제 아래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중국에서 弘治 초엽의 『황화집』을 읽다가 허판서의 작시 능력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평양에 이르렀을 때 국왕이 허참판을 보냈는데 연회 자리에서 따져보니 바로 그 후손이었다. 듣건대 그 형은 의정부참의라고 한다. 문한 가문으로서의 위상이 대대로 혁혁하고 고관대작이 이어지니 세상에 드문 일이다. 돌아간다고 고하기에 이것을 지어 작별한다.²⁵

사행을 나서기 전에 오희맹은 『황화집』을 읽었고 이 책을 통해 조선 문인의 범주와 수준을 가늠하고 있었다.²⁶ 오희맹이 본 『황화집』은 1488년(성종 19) 동월과 왕창이 왔을 때 간행된 것으로 당시 허판서, 즉 허중(許琮)이 원집사를 담당했다.²⁷ 허중은 허항의 조부이고 인용문에서 말한 허항의 형은 허흠(許洽)을 지칭한다.

황화수창 자리가 비단 문예적 재능을 뽑내는 현학의 공간만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 입장에서 이문(吏文) 작성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이문 제작을 전담하던 최세진이 연로해지자 1540년(중종 35) 김안국은 한어와 이문 습득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예전에 龔使臣(필자 주: 龔用卿)이 “남방의 藩國은 모두 자제를 보내 입학

25 『황화집』 권21, 오희맹, <平壤城, 送別吏曹許參判>【予在中朝, 嘗閱弘治初皇華集, 知許判書能爲詩. 予至平壤, 國王遣臣許參判, 從宴究之, 迺其後也, 且聞其兄參議政府. 書香奕業, 金紫相望, 亦世之希也. 告歸, 作此爲別】.

26 주지번도 사행 전부터 『황화집』을 통해 이행, 정사룡, 이이, 유근 등의 문학적 역량을 파악하고 있었다(『성소부부고』 권18, 文部15, 紀行上, <丙午紀行>).

27 오희맹은 대양 연로에서 가마에 기댄 채 唐阜의 『황화집』을 읽었다. 이 『황화집』에는 1521년(중종 16) 唐阜와 史道, 원집사 李荇의 황화수창이 수록되어 있는데 鄭士龍, 李希輔, 蘇世讓, 李沆, 金詮, 南袞 등의 시편도 실려 있다(『稗官雜記』 권3).

시키고 있소. 安南國, 暹羅國, 琉球國의 경우도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그대 나라만 보내지 않고 있소. 그대 나라는 국자감 입학을 요청하더라도 가능할 게요.”라 말했습니다. 만약 요동 향학에 자제 파견을 주청하여 이문서관 중에 영민한 자를 보내 배우게 한다면 한어와 이문을 정밀하게 배워 올 것 입니다.²⁸

공용경의 전언에 따르면 안남국, 섬라국, 유구국 등 남방의 모든 번국이 명나라에 자제를 입학시키고 있었다. 유독 조선만이 배제된 것이다. 김안국은 공용경이 귀뜸해 준 말을 종종에게 주달하며 요동 향학 입학을 요청하되 일반 문신이 아닌, 영민한 이문서관을 파견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조명(朝明) 문신 간 외교적 회합은 조선 조정이 국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²⁹

4월 4일 두 사신은 의순관에 도착했고 이튿날 저녁까지 각자 자기 방에서 증별시를 제작하다가 4월 8일 압록강을 건넜다. 사신이 도사전위사(都司餞慰使) 이희보와 별전위사(別餞慰使) 박수량에게 연로에서 지은 300여 수의 시를 보여주자 이희보와 박수량은 두세 수에 차운하며 이별의 정회를 전했다.³⁰ 사신에게 진별시를 받은 자는 반송사, 전위사, 평안도 지방관을 위시하여 역관 어숙권 등 7명, 의원 신분(申漬) 등 2명, 서사관 유이손(柳耳孫) 등 이다.

사행 일정 중에 겨를이 없어 시문을 짓지 못한 경우에는 회정 길에 틈

28 『중종실록』 35년(1540) 10월 13일.

29 김덕수(2020), 「조선의 對明 유학 요청과 중국 유학에 대한 조선 문인의 견해」, 『한국실학연구』 39호, 한국실학학회, pp. 152-156. 전위사 許沆이 조선 역관의 한어 구사 능력을 염려하며 요동 향학 유학에 관해 의견을 묻자, 공용경은 “요동뿐만 아니라 국자감 입학을 요청하더라도 어찌 들어주지 않겠소. 閣老 李時常이 ‘조선은 예의의 나라다.’라 말했소.”라 대답했다[『중종실록』 32년(1537) 4월 3일].

30 『황화집』 권22, 이희보, 〈伏蒙垂示途中佳什, 臨別恩恩, 無暇通和, 僅綴百祥·林畔·所串三近體詩韻, 聊敘別懷〉; 박수량, 〈伏蒙示什, 豈敢通和, 聊步百祥·林畔兩韻, 仰敘別懷〉.

틈이 완성하여 의주에서 반송사 일행에게 보여주었다.³¹ 물론 『황화집』 수록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밖에 조선 관원의 촉탁을 받아 시문을 찬술하기도 했는데 김안국의 보락당(保樂堂), 김안로의 명허헌(明虛軒), 소세양의 청심당(淸心堂), 심언광의 해운정(海雲亭), 정사룡의 『조천일기』(朝天日記), 허항의 『양천세고』(陽川世稿)가 그 대상이다. 중종이 주요 역관에 시종신을 보내 전위연을 베풀고 각종 서화를 보내 주자, 두 사신은 도합 11통의 편지를 중종에게 보냈다. 이밖에 두 사신과 정사룡이 수수한 편지 7통이 『황화집』 말미에 편차되어 있다.

귀국 후 공용경은 조선의 문물과 예의법제가 중국과 다름없다고 중국 조정에서 극구 칭찬했다고 한다. 조선 측에서는 우리나라 문장이 부끄러울 게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자평하면서, 문신을 선발하여 부단히 제술을 익히게 함으로써 추후 황화수창에 대비하도록 했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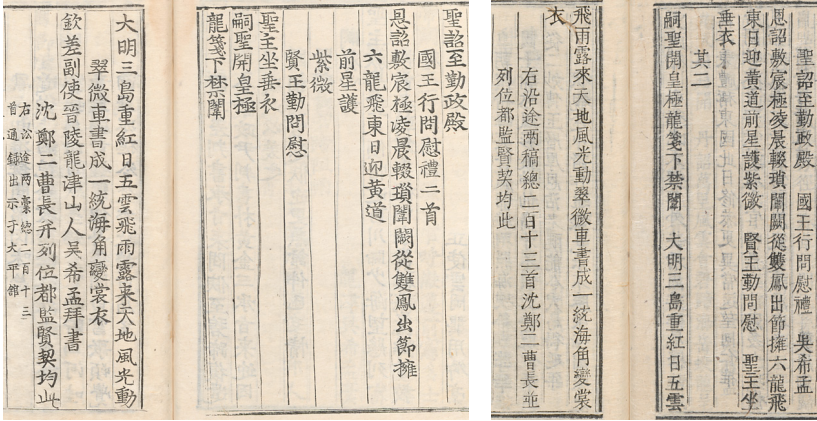
3. 시고의 작성과 수정, 『황화집』 간행 경위

황화수창은 시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미리 지어 둔 시편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때의 시고에는 작품 본문, 시제 혹은 시제 격에 해당하는 후지(後識), 연호까지 포함하는 찬술 시기, 찬자의 여러 직함과 급제 사실, 본관, 성명 등이 소상하게 적혀 있다. 반면 양측이 마주한 채 즉석에서 수창할 때에는 작품 본문과 찬자 성명만을 간략히 적었다. 매 시고는 찬술 시기에 따라 차례대로 정리되었다. 두 사신도 각자의 시편을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수시로 갈무리했고 원접사는 『황화집』 간행을 위해 시편들을 그때그때 정리했다.

전술했듯이 오희맹은 한양 도착 직후에 <조서가 근정전에 도착하자 국

31 『황화집』 권22, 공용경, <登太平樓賦>【行還到義順館, 錄示】; 공용경, <遊翠屏山記>; 오희맹, <遊翠屏山賦>【并序. 行還義順館, 錄示】 등.

32 『중종실록』 32년(1537) 11월 3일.



[그림 1] 1608년 간본 『황화집』(좌)과 1773년 통합본 『황화집』(우)의 오희맹 시편

왕이 문위례를 설행하다) 2수를 지었다. 『황화집』에 수록된 해당 시편은 [그림 1]과 같다.

단회 『황화집』과 1608년 간본 『황화집』에는 양국 문사가 실제 작성했던 본래 시고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오희맹의 위 시편 역시 그가 애초 작성했던 시고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외교문서에 방불할 만큼 격간과 대두가 철저하다는 것이다. 1773년 통합본 『황화집』은 상당 부분 편집을 거쳤다. 찬자의 경우, 직함과 본관, 자호 등은 생략한 채 성명만 시제 아래 간략히 기입했고 격간과 대두를 최소화했으며 작품 후반부의 후지 부분도 축약했다. 이에 그간 지은 시고 전체를 정리하여 태평관에서 꺼내 보여주었다는 유의미한 정보가 누락되게 되었다. 이밖에 통합본에서는 제목이 없는 경우에 작품 뒷부분의 후지를 제목으로 삼기도 했고 작품의 차제를 정할 때 명 사신을 우선시켰으며 작품 속 문장은 가능한 축약했다는 특징을 보인다.³³

3.1. 시고 전사를 담당한 두목과 서사관

양국 문사가 수창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보여준 시고를 본인이 직접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³⁴ 추정컨대 미리 지어 놓은 시편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경우에는 사자(寫字)를 담당한 관원이 대신 썼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원접사 일행이 두 사신을 접반하며 연로에서 견문한 사항을 기록한 책이 『천사일로일기』(天使一路日記)³⁵이다. 그 내용 중의 일부를 보겠다.

① 3월 8일: 上使(필자 주: 공용경)의 頭目이 동헌에서 상사가 지은 시편을 옮겨 썼다. 통사 洪謙이 그 뒤에서 몰래 엿보아 절구 2수를 외었다. … 시편 생략 …³⁶

② 3월 21일: 또 원접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머칠 전 꺼내 보여준 원고는 애초에 손수 쓴 것이 아니요. 글씨를 베낀 자들이 잘못 쓴 곳이 많고 글자를 빠뜨린 곳도 있을 게요. 오늘 교열한 뒤 돌려줄 테니 남김없이 보내시오.”라 했다. 또 말하기를 “매일 연회를 베풀 탓에 빈주가 모두 피곤하니 오늘 연회는 열지 않는 게 좋겠소.”라 하더니 인사하고 들어갔다. 밤에 상사는 그 시고를 가지고 몇 첩을 교감하고 나서 원접사에게 먼저 보냈다.³⁷

34 물론 즉석에서 수창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썼을 것이다.

35 『天使一路日記』(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5호)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이귀 178)이다. 1606년(선조 39) 李好閔은 선조에게 “원접사와 반송사의 일기는 일행의 종사관 1명을 뽑아서 맡아 수정하게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사신 접반 시 종사관 1명이 연로의 일정을 일기로 정리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 [『선조실록』 39년(1606) 7월 22일].

36 “上使頭目在東軒，傳寫上使所製詩篇，通事洪謙從其後，窺見誦得兩絕句。…시편 생략…”

37 “且謂遠接使曰，我等前日出示之稿，初非手錄也。寫字人等多致誤書，有落字處，今欲考校以

③ 3월 27일: 처음에 상사가 金郊館에 이르렀을 때 원접사가 쓴 현판을 보았다. 질문을 통해 정판서(필자주: 정사룡)의 친필임을 알고 나서 칭찬하며 말하기를 “필법이 이와 같거늘 시를 지을 때 어찌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게 하오!”라 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지은 <쾌재정> 시에 중첩해서 쓴 글자가 있다는 이유로 시편을 가져오게 하여 수정하더니 원접사에게 고쳐 쓰게 했다.³⁸

①과 ②를 통해 중국 사신이 시편을 찬술하면 두목(頭目)이 그 시편들을 옮겨 적어 따로 정리하거나 혹은 원접사 측에게 전해주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 조선 역관이 두목 뒤에서 공용경 시편을 엿보아 외워 전해주는 장면은 조선 측이 차운시 제작에 얼마나 전전공공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³⁹ 『패관잡기』에 “(급사 오희맹이) 태평관에 이르더니 글씨 잘 쓰는 두목을 시켜 자기가 지은 시를 쓰게 했다.”가 보인다.⁴⁰ 오희맹도 두목에게 시고 전사를 맡긴 것이다. 시고에 오류가 있을까 염려하여 공용경이 원접사가 가지고 있던 시고를 가져오게 하여 늦은 밤까지 직접 교감한 뒤 다시 돌려보낸 까닭은 문한에 조예가 없던 두목이 대필했기 때문이다. ③에서 알 수 있듯이 정사룡도 황희수창 과정에서 중국 사신에게 시를 보여줄 때 으레 타인에게 대필하게 했다. 원접사 일행 중에 사자 담당 관원이 포함된 것이다.⁴¹ 조선 측에서 사자를 담당한 관원은 당연히 서사관이다.

還, 須無遺送來. 又曰, 逐日設宴, 賓主俱勞, 今日之宴, 願乞停行, 遂揖辭而入. 夜, 上使將其詩稿, 校勘數帖, 先送于遠接使.”

38 “初上使到金郊館, 見遠接使所寫懸板, 問知是鄭判書手筆, 稱讚曰, 筆法如此而作詩何必令人替寫乎! 及到平壤, 以所題快哉亭詩有疊用字, 令取來改下, 仍令遠接使改寫.”

39 역관 洪謙이 외운 작품은 공용경의 <開城大平館, 次韻> 10수 중 其四와 其五이다[『황화집』 권18].

40 『패관잡기』 권3.

41 1602년 顧天竣과 崔廷健이 왔을 때 韓濩가 원접사 李好閔 일행에 포함된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 서서관 중에 정사릉과 공용경 사이에서 전사(轉寫)를 주로 담당하는 유이손(柳耳孫)이었다.⁴² 『패관잡기』에 아래 내용이 보인다.

운강 공용경이 돌아가는 길에 운흥관에 이르러 자기가 지은 시편의 현관을 보고 “누가 썼는가?”라고 묻자, 통역관이 “원접사 정호음의 막하관 유이손의 글씨입니다.”라 대답했다. 이에 그를 불러서 술을 주며 말하기를 “처음에는 네 얼굴만 보았을 뿐 너에게 왕희지의 필체가 있는 줄 몰랐구나.”라 했다.⁴³

공용경은 귀국 직전에 유이손에게 진별시를 남기며 그의 산수지취와 탁월한 필법을 추허한 바 있고⁴⁴ 2년 뒤 조사 화찰 및 종사관 임형수도 유이손의 필력을 칭찬하기도 했다.⁴⁵

황화수창 현장에서 다수의 서서관이 활약했다. 1537년 황화수창에는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아래 1539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원접사 소세양은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에 화찰과 정충의 근황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다.

두 사신은 늘 『사조선록』을 펼쳐 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산천과 누대가 없고 그들이 지은 시는 모두 공용경 시에 차운한 것입니다. 사행에 관한 일은 거의 묻지 않고 오직 작시를 일삼아서 하루에 지은 시가 20여 수이고

42 『황화집』 권4, 공용경, <司正柳耳孫從鄭刑曹侍子, 將發舟西歸, 拜而求詩, 耳孫善書, 因走筆以遺之>.

43 『패관잡기』 권4.

44 『황화집』 권4, 공용경, <司正柳耳孫從鄭刑曹侍子, 將發舟西歸, 拜而求詩, 耳孫善書, 因走筆以遺之>. “耳孫構有安樂堂, 自稱漢濱之漁翁, 憐渠亦識山水趣, 釣遊江曲吟清風. …중략… 知汝頗能用筆法, 爲我大書揭堂中【正使龔用卿稟. 時嘉靖丁酉夏四月六日也】.”

45 『패관잡기』 권4; 林亨秀, 『錦湖遺稿』, 五言古詩, <贈柳生耳孫>, “愛爾柳伯胤, 筆法天下獨. 何曾數羅趙, 已躡鍾王躡. 況復詩律清, 珠璣携滿掬. 今隨華使來, 相送江之曲. …후략….”

하루에 백여 리를 갑니다. 또 숙소에서 연회를 그치지 않으므로 신은 잠시도 편안히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 말 위에서나 야간에 근근이 화답하면 종사관과 서사관들이 늘어앉은 채 밤새워 베끼고 있으나 미처 겨를이 없습니다. 초10일 입경할 예정입니다.⁴⁶

『사조선록』은 일로의 산천과 누대, 지명의 유래나 전설 등 조선에 관한 정보가 망라되어 있어 한시 제작의 원천이요 시료로서 활용되었다.⁴⁷ 두 사신이 작시에 골몰하며 날마다 20여 수 이상을 지어 꺼내 놓자 원접사는 틈나는 대로 차운하느라 겨를이 없고 종사관과 서사관들도 밤새 시고를 베껴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다. 집반과 수창 현장에서 원접사 일행이 겪는 고충이 문면에 드러난다. 당시 소세양이 서사관의 부족을 언급하자 중종은 유이손을 추가 파견했다.

소세양의 보고대로 사신 일행은 4월 10일 모화관에 도착했다. 중종이 종사관 임형수에게 사신의 시편과 원접사의 화답시를 베껴 왔는지 여부를 묻자, 임형수는 “사신이 지은 것은 모두 정서했으나 원접사가 화답한 것은 아직 정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안도 이전에서 창화한 시편은 모두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 지금 입게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⁴⁸ 모화관 도착 전에 사신 시편을 이미 다 정서했고 평안도에서 원접사와 수창한 작품도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한시 제작과 정리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전문 서사관이 전사를 담당한 조선과 달리, 사신 측은 두목이 시편을 옮겨 적었으므로 전사 과정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공용경은 귀국 길에 대동강에 배를 띄우더니 오연율시 한 수를 짓고는 작품 후반부에 후지를

46 『중종실록』 34년(1539) 4월 7일.

47 김덕수(2001), 「朝鮮文士와 明使臣의 酬唱과 그 樣相」,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학회, pp. 119-120.

48 『중종실록』 34년(1539) 4월 10일.

달았다.

지난번에 역관이 “‘頻’을 ‘萍’으로 착각했는데 ‘庚’자와 하나의 운으로 통용할 수 있는지요?”라 말하는 것을 들었소. 숙소로 돌아와 시고를 검토해보니 <대동강> 작품은 본래 ‘迎’자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작품이 바로 ‘頻’자였소. 쓰는 자가 헛갈려서 ‘頻’자로 잘못 쓴 것이요. 詩韻을 다 살핀 뒤 즉시 보내주길 바라오.⁴⁹

공용경이 지은 <중범대동강>(重泛大同江)은 평성 경운(庚韻)으로 각운을 삼았는데 운자는 성(城)-명(明)-경(輕)-영(迎)이다. 그런데 공용경의 두목이 해당 한시를 전사하다가 그 옆에 써어 있는 다른 작품 속 운자, 즉 빈(頻)자를 쓰고 말았다. 빈은 평성 진운(眞韻)이므로 평성 경운과는 어울릴 수 없다. 따라서 ‘빈’과 발음이 흡사한 ‘핑’(萍)을 잘못 적은 것으로 판단한 뒤, 평성 청운(靑韻)인 핑을 평성 경운과 통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사를 통해 질의한 것이다. 공용경 시고를 대필한 두목의 실수로 인해 조선 측에서 차운에 혼선을 빚었던 정황을 보여준다.

3.2. 사신 귀국 직후 시고의 편차와 교정, 간행

1537년 사행 시 상황은 아니지만 양측이 시고를 따로 정리하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가 보인다. 1488년(성종 19) 동월과 왕창이 조사로 왔을 때 이조판서 허종이 원접사를 담당했다. 귀국하기 직전에 왕창은 칠언율시 몇 수를 짓더니 “내가 지은 약간 수의 시는 모두 노정에서 정회를 펼친 것

49 1608년 간본 『황화집』 권4, 공용경, <重泛大同江>. “郭外林園屋，亭濱水向城。嶺雲頭上黑，江樹眼中明。隱浪傳杯遠，凌風舞袖輕。浦鷗似相識，容易往來迎。”【頃聽譯者之言，誤以‘頻’爲‘萍’，可與‘庚’字一韻同用。及歸館檢藥，見大同江作，本‘迎’字，旁有別作，乃‘頻’字，書者影響，誤作‘頻’字也。詩韻覽畢，希卽送來】.

이요, 이조(吏曹)[필자 주: 허종]와 함께 주선할 때 허종이 때때로 적어 왔는데 언뜻 보아도 적지 않은 것이 매우 많았소. 혹시 보고 싶다면 재차 베껴 오시오.”라는 주석을 달았다.⁵⁰ 이 주석을 통해 양국 문사가 수창한 시편을 조선 측에서 정리하여 사신에게 보냈다는 점, 당시 왕창 작품의 상당수가 시고에 누락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누락 시편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창은 불만의 뜻을 완곡히 드러내며 자신에게 찾아와 빠진 부분을 확인해 가라고 당부했다. 사신들은 국경을 건너기 전 『황화집』 간행에 적잖은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때는 황화수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⁵¹

공용경은 4월 8일 압록강을 건너기 전까지 11통의 편지를 중종에게 보냈다. 다음은 4월 7일 의주에서 쓴 편지의 일부다.

예전에 경유한 곳의 풍토와 산천에 대해 간간히 시편을 지었는데 모두 한때 거친 말을 우연히 쓴 것으로 딱히 심사숙고하지 않았으니 어찌 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앞사람의 고사에 따라 간행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연히 嫖母의 추한 모습을 더욱 가릴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이전에 정사룡에게 말했듯이 기어코 간행해야 한다면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작품 중에 아랫사람[雜手]이 쓴 것은 자획이 잘못되어서 비슷한 글자를 착각한 사례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바라건대 정사룡에게 교감을 명하여 부끄러움이 늘지 않고 오류를 답습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완성되는 날, 연경에 오는 자에게 몇 짚을 부쳐 보내주신다면 그 같고 다름을 상고함으로써 조선의 문헌이 얼마나 성대한지 증험하고 멀리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⁵²

50 『황화집』 권11, 〈道中偶成, 奉東董老先生〉. “【拙詩若干首, 皆途間遣興之作. 與吏曹周旋, 許時錄來. 一看, 未錄者頗多. 儻欲看, 再當寫來.】”

51 기순은 『황화집』 수록을 위해 국경을 넘은 이후에도 〈漢江樓記〉, 〈謁孔廟詩序〉를 지어 보냈다[『성종실록』 7년(1476) 4월 20일].

52 『황화집』 권22, 〈又〉. “前所歷風土山川, 間有拙作, 皆出一時偶書蕪說, 殊不敬意, 豈敢云詩. 聞之前人故事, 卽欲循例梓行, 恐嫖母之醜, 愈不能掩. 前此, 已與鄭士龍言之, 無已則有

자기 시편에 대한 검사를 늘어놓더니 “기어코 간행해야 한다면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라 말한 뒤 『황화집』 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요청했다. 즉 『황화집』 간행 전에 정사룡에게 교감을 맡길 것과 『황화집』이 간행되면 사행 편에 몇 질을 보내달라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공용경은 『황화집』을 받게 되면 그 완성도를 상고함으로써 조선 문헌의 수준을 증험하고 중종이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하는지를 가늠하겠다고 했다. 조선 측에서 가지고 있던 사신의 시고는 전문 서사관이 아닌 잡수(雜手)가 전사한 것이므로 면밀한 교감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⁵³

4월 13일, 요양(遼陽)에 도착한 공용경은 정사룡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교감을 통해 원고의 오류를 잡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⁵⁴ 사흘 뒤 정사룡은 두 사신에게 아래 편지를 썼다. 이때는 13일에 쓴 공용경의 편지를 받기 전이다.

헤어진 지 열흘이 되자 그리운 회포가 날짜와 함께 쌓여 갑니다. 遼陽에 이미 도착했을 텐데 며칠이나 머물다가 북경으로 출발하시나요? 저는 남기신 시편을 가지고 연로에서 편차하여 오류를 교정한 뒤 이제 막 淨寫를 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완료될 것입니다. 다만 오류가 여전히 많아서 훗날 좌우에게 죄를 짓게 될까 봐 염려될 뿐입니다.⁵⁵

請焉。作中雜手所書，字畫訛舛，恐有魯魚亥豕之差，希令土龍讎校，庶不增醜而免承訛襲謬也。完日，多惠數部，附朝京人來，將以考其異同，以驗東藩文獻之盛，足見遠情。”

53 1539년(중종 34) 薛廷龍도 의순관에서 중종에게 편지를 띄우며 “『황화집』 판각에 관한 사안은 오자를 교감하여 그런대로 마음에 드는 것을 판각하면 좋겠다고 이미 직접 아뢴 적이 있으니 소세양에게 일임하기를 재차 말씀드립니다.[集刻一節，欲得校讎訛字，梓其稍可意者，已曾面瀆，并囑世讓，敢再申]”라 했다(『황화집』 권24, 華察, 〈又〉).

54 『황화집』 권22, 〈答鄭判書，兼寄國相漢城曾遊列位書〉. “拙稿更希一讎校，恐訛謬處多轉相沿襲耳.”

55 『황화집』 권22, 〈又〉. “奉違浹旬，戀德之懷，與日俱積。伏想行旆已抵遼城，未知淹駐幾日，復脂係京之轄。土龍謹將所留篇什，沿路編次，讎正訛舛，方令淨寫，俟數日完了。第慮謬誤尚多，他日獲罪左右是懼。”

정사룡은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원고의 편차와 교정을 진행했고 불과 칠팔일 만에 연로에서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나서 서사관에게 정사를 맡긴 상태였는데 바로잡지 못한 오류가 있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⁵⁶

오희맹은 4월 26일 정사룡에게 감사의 편지를 띄우며 “사행 시 경유하는 곳을 기록하며 우연히 제영시를 지었는데 기록한 자가 용렬하여 오류가 많을 듯합니다. 듣건대 성심껏 교정했다고 하니 매우 위로가 됩니다.”라고 말했다.⁵⁷ 이처럼 원접사 역할에는 황화수창뿐만 아니라 『황화집』 원고의 편차와 교감도 포함되었다.

정사룡이 반송사 임무를 마치고 중중에게 복명한 것은 4월 30일이다. 정사룡이 완성된 정사본을 올리면 중중은 교서관에 정사본을 내려 간행을 명했을 것이다. 이후 여타 반송사가 복명하던 상황을 살펴보겠다.

① 반송사 신광한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張公(필자주: 張承憲)의 시고 1권을 바치자 전하께서 즉시 편차를 명하더니 판각하게 하고는 나에게 서문을 쓰도록 했다.⁵⁸

② 반송사 이호민이 국경에서 돌아와서 두 선생이 지은 시문 1권을 바치자 전하께서 완미하며 칭찬하더니 교서관에 명하여 간행하게 함으로써 영원히 전하게 했다.⁵⁹

56 그림에도 불구하고 『황화집』 간본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로 인해 간행에 참여한 관리는 모두 처벌을 받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재차 인행했다[『중종실록』 33년(1538) 11월 25일].

57 『황화집』 권22, 〈答鄭判書書〉. “東行紀歷, 偶有題詠, 錄者冗冗, 恐多訛失. 聞已用心校正, 慰慰. … 嘉靖丁酉清和卅六日, 副使龍津吳希孟拜.”

58 『황화집』 권27, 鄭士龍, 〈序〉. “伴送使申光漢竣事而還, 進張公詩稿一帙, … 尊狀… 殿下卽命編次, 俾壽諸梓, 仍命臣士龍敘之.”

59 『황화집』 권36, 沈喜壽, 〈序〉. “伴送使李好閔回自境上, 以兩先生所製詩文一卷進. 我殿下奉玩嘉歎之餘, 付書局鈔于梓, 以壽其傳.”

③ 원접사 유근이 국경에서 전송했다. 돌아올 때 두 선생이 연로에서 지은 시문을 편차하여 약간 편으로 엮은 뒤 우리 전하에게 바치자 우리 전하께서 즉시 교서관에 내려 간행하게 함으로써 영원히 전하게 했다.⁶⁰

④ 반송사 유근이 의주에서 돌아와서 공(필자 주: 熊化)의 시문 1절을 바치자 전하께서 즉시 간행하게 함으로써 영원히 전하게 했다.⁶¹

인종~광해군 연간에 정사룡, 심희수, 신희, 이정구가 찬술한 『황화집』 서문 중에서 반송사가 사신을 전송하고 나서 『황화집』 원고를 국왕에게 올리는 장면을 기술한 대목들이다. ①은 인종이 신광한이 올린 시고를 보고 편차와 간행을 명한 경우이고, ③은 1537년 정사룡의 사례처럼 반송사 유근이 귀경하는 길에 시문을 편차한 뒤 선조에게 바친 경우이다. ②와 ④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호민과 유근이 사신을 전송한 직후에 원고 편차와 교정을 수행했을 것이다. ①에서 신광한이 올린 시고도 신광한의 일차 편차와 검토를 거친 상태였을 것이다.

국왕이 간행을 명한 뒤에도 교정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을 것이다.⁶² 1537년 4월 30일, 정사룡이 복명하자 중종은 “『황화집』을 인출할 때 가감하고 개정하는 등의 일은 대제학【김안로】에게 질정하여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명했다.⁶³ 교정의 완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홍문관대제학 김안로

60 『황화집』 권38, 申欽, 〈序〉. “遠接使柳根送之境上, 其還也, 纂次兩先生途道所製詩文, 彙爲若干編, 以進于我殿下. 我殿下卽下書局, 壽諸梓, 俾永厥傳.”

61 『황화집』 권43, 李廷龜, 〈序〉. “伴送使柳根旋自江上, 將公詩若文一帙以進. 殿下卽命鈔梓, 以壽其傳.”

62 『황화집』 원고 교정에는 오자뿐만 아니라 내용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었다. 1602년 이호민이 顧天垓의 〈平壤行〉에 차운하면서 “초야를 떠난 천병 애달픈데, 풀숲에는 백골이 고갯 듯 쌓였네.”[身離草野哀天兵, 草間白骨如委積]라는 시구를 짓자, 명나라 사람이 이 시구를 본다면 섭섭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하고 조정에서 갑론을박을 펼친 끝에 해당 시구를 수정했다[『선조실록』 35년(1602) 8월 13일; 17일].

63 『중종실록』 32년(1537) 4월 30일.

까지 『황화집』 교정에 개입시킨 것이다.

2년 뒤 화찰과 설청충이 왔을 때 소세양이 원집사를 담당했다.⁶⁴ 소세양은 사신을 전송하고 나서 이렇게 복명했다.

『황화집』이 5권인데 모두 해서로 베껴 왔습니다. 그러나 틀린 곳이 아직 많으니 어람한 뒤 내려주시면 종사관들【崔演·嚴昕·林亨秀】에게 교서관으로 상시 출근하여 교정하고 인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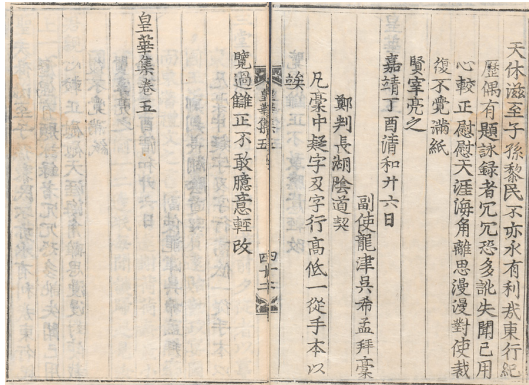
소세양이 중종에게 올린 정사본은 소세양의 편차와 교정을 거쳤을 터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류가 많다는 이유를 들면서 당시 종사관으로 참여했던 3명의 문신에게 교서관으로 상시 출근하여 교정을 보게 하도록 중종에게 요청했다. 물론 중종은 윤허했다.⁶⁶ 종사관이 원집사를 보좌하는 책무를 마치고 나서 교서관으로 출사하여 『황화집』 간행 직전까지 교정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는지 여부는 미상이다.

1608년 간본 『황화집』의 마지막 책[제5책] 맨 뒷장에 정사용이 찬한 것으로 여겨지는 짙막한 문장이 보인다. 바로 앞에는 오희맹이 4월 26일에 정사용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오희맹 편지 바로 뒤에 “원고 중의 의심스런 글자 및 자행(字行)의 고저는 한결같이 수본(手本)을 따르면서 (좌

64 화찰과 설충은 한양을 떠나기 전 중종에게 글을 올려 “『황화집』은 이미 고사가 있으니 지금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 …중략… 간행할 때 유식한 자에게 전일의 작품까지 교열을 시켜 다소나마 전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편을 뽑아 간행할 것이며 배신들이 화답한 것 또한 선별해서 간행하여 피차 서로 어울리게 하십시오.”라 말했다. 원고 교열과 선별적 수록, 양국 문사 시편의 양적 균형 등을 요청한 것이다[『중종실록』 34년(1539) 4월 16일].

65 『중종실록』 34년(1539) 5월 28일.

66 1522년(중종 17)에도 원집사 이행이 자신뿐만 아니라 종사관 3명이 함께 『황화집』 원고의 교정을 보겠다고 요청하여 중종의 윤허를 받은 바 있다. 이행은 황망한 가운데 시편을 지었으므로 字音의 高低, 즉 평측에 오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꼽으며 교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중종실록』 17년(1522) 1월 20일].



[그림 2] 1608년 간본 『황화집』(K4-366) 제5책 마지막 면

우께서) 열람하여 교정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감히 억측으로 경솔히 고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적혀 있다.⁶⁷ 열람을 뜻하는 ‘납과’(覽過)를 대두(擡頭)한 것은 열람의 주체가 사신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이 문장을 통해 정사룡이 수본(手本)에 의거하여 원고를 수정했다는 점, 『황화집』 1차 간본을 중국으로 보내며 사신의 열람과 교정을 기다렸다는 점 등을 유추할 수 있다. 교정의 저본으로 삼은 수본은 사신의 친필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미리 지어 놓고 나서 보여준 시편이 아닌, 대면하여 즉석에서 써 준 친필 원고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밖에 1521년(중종 16) 당고(唐阜)와 사도(史道)가 왔을 때 재미있는 교정 사례가 보인다. 평양에 도착한 사도는 기자(箕子)를 소재로 악부 2장을 짓더니 “열람하라고 보낸 제 작품은 대부분 황망한 사이에 베긴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잘못된 글자가 있어서 도리어 박자(朴子)로 하여금 왕래하며 덧붙이거나 수정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문(斯文)의 아정한 기운을 형적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라는

67 『황화집』 권22, 마지막 면, “凡稟中疑字及字行高低, 一從手本以俟覽過讎正. 不敢臆意輕改.”

후지를 달았다.⁶⁸ 원접사 이행 측에 보낸 시고는 다망한 사이에 베꼈기에 오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변에 교정을 담당할 책임자가 없었으므로 박씨 성을 가진 인물을 불러들여 첨삭과 수정을 맡긴 것이다. “사문의 아정한 기운을 형적으로 따질 수 없다.”는 언급으로 보아 박자(朴子)는 신분이 낮은 인물임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자’는 종종 연간에 역관으로 활약했던 박지(朴址)이다. 박지는 『황화집』에 누차 등장하는데 양국 문사가 시주를 즐길 때 서거정 시구를 암송하여 주흥을 돋우기도 했고⁶⁹ 명 사신과 조선 문사 간의 통역을 담당했으며⁷⁰ 뛰어난 서법과 중국어 실력으로 명 사신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⁷¹ 조선의 일개 역관이 명나라 사신의 시고를 교정보며 첨삭과 수정을 맡았던 것이다.⁷²

3.3. 1차 간본 간행 이후의 교정과 재간행

『황화집』 간행을 마치고 간본을 사신에게 보내면 『황화집』 사안이 일단락되는 것일까? 1537년 정사룡이 간행을 주도한 『황화집』에 오류가 발견되자 해당 오류를 수정한 뒤 재차 간행했다는 실록 기사는 이러한 궁금중

68 『황화집』 권15, 史道, 〈箕子樂府二章 擬古體〉. “凡以拙作送覽, 多在忽忽之際所寫. 其間落差字, 而未免還令朴子通來添改. 乃見斯文一氣之雅, 不以形迹較計也. 感感. 道拜瀆.”

69 『황화집』 권14, 唐阜, 〈暮投寶山, 與參贊李相·觀察李使, 小酌東軒. 酒闌, 朴通事誦天寒滿酌舊句, 予知其意, 因足成二絕云〉.

70 『황화집』 권15, 史道, 〈忍齋〉; 〈十玩堂〉【余奉命來, 鄭子逆於江上, 往復月餘, 朝暮時一見之, 甚有英邁俊逸之氣. 茲余將復渡江而西, 以譯士朴址, 來求忍齋·十玩堂詩. 余方忽忽行色, 勉賦數句以答, 亦以酬其勞, 而識其別云】.

71 『황화집』 권65, 唐阜, 〈朴譯士址在東國以能書名. 予使過定州所名納清亭者, 其手筆也. 然以能華言往返從予者, 踰一月, 瀕行請詩, 賦此贈之〉.

72 박지는 당고와 사도에게 받은 시편을 축으로 만들었고 당시 원접사를 담당했던 李荇이 그 시축에 칠언율시를 써 주기도 했다(『容齋集』 권3, 七言律, 〈題朴址大使贈別詩軸〉). 【唐·史兩學士之奉使來, 余以遠接使往迎于義州. 其還, 亦伴送于鴨江之上. 朴生以譯官從行, 兩使各留詩爲別. 其後, 朴生裝成小軸, 求余詩以識. 追思往事, 今已五年矣. 有懷其人, 聊和一律與之. 時乙酉季夏也. 青鶴道人書】.

을 촉발시킨다.⁷³ 1606년(선조 39) 유근이 주지번에게 보낸 편지는 『황화집』 교정 및 간행 과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자료다. 주지번과 양유년이 황태자 탄생 조서를 가져왔을 때 유근이 원접사를 맡았다. 4월 14일 두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자 조선에서는 『황화집』 간행을 추진하여 그 완성분을 사신에게 보내주었다.

지난번 『황화집』은 사은사 편에 보냈기 때문에 황급하게 인출한 나머지 꼼꼼하게 교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듭 교정을 보았을 때 오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오류를 바로잡은 뒤 재차 한 건을 올립니다. 이미 받아 보셨는지요? 책을 교정보는 것은 먼지를 터는 것과 같아서 오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써서 올린 原本을 아직 가지고 계실 테니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헤랑해 주십시오.⁷⁴

중국으로 사행을 떠나는 사신 편에 『황화집』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고 이때도 사은사를 통해 『황화집』을 전달할 요량이었다.⁷⁵ 사은사는 5월 6일 떠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촉박하여 인출을 서두르다 보니 세심한 교정을 거치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교정을 보니 오류가 눈에 띄었고 국왕 선조도 오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⁷⁶ 이에 오류를 수정하고 나서 재차 간행하여 보냈다.⁷⁷ 첫 번째 간본을 이미 보낸 상태였으나 두 번째 간본을

73 『중종실록』 33년(1538) 11월 25일.

74 『西坰文集』 권6, 書, 〈上朱天使書〉. “前件皇華集, 爲緣順付謝恩使之行, 印出忙遽, 未及細考. 及至重校, 頗覺有誤字, 乃敢隨後刪改, 復呈一件. 伏想已達否, 校書如拂塵, 安知又有誣誤也耶. 所幸尚有當初錄奉原本, 可得以隨謄正之. 伏希盛亮.”

75 『황화집』을 간행한 뒤 중국에 있는 사신에게 전해주는 과정은 『중종실록』 33년(1538) 2월 22일조에 자세하다.

76 『선조실록』 39년(1606) 10월 29일조.

77 당시 교서관 소장본을 위시하여 각도의 史庫 소장본도 모두 수정하여 보냈다[『선조실록』 39년(1606) 11월 1일].

찍지 않을 수 없었다. 유근은 두 번째 간본의 수령 여부를 묻더니 “책을 교정보는 것은 먼지를 터는 것과 같아서 오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라 말했다. 그리고 주지번에게 직접 교정을 봐 줄 것을 요청했다. 교정을 요청한 이유는 일단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고⁷⁸ 또 애초에 등사해서 올린 원본을 주지번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류로 인해 『황화집』을 두 차례에 걸쳐 인출하여 보낸 것도 이채롭거니와 이미 연경에 도착한 주지번에게 교정을 부탁하는 장면도 주목을 요한다. 일종의 필자 교정인 셈이다.

주지번은 유근의 부탁대로 교정을 수행했을까? 유근이 주지번에게 띄운 답장은 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賀至使 귀국 편에 멀리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으니 위로되는 마음이 구름을 헤쳐 상서로운 별을 보는 듯하고 폭염에 신음하다가 청량한 바람을 쐬는 듯합니다. 편지에서 말씀하신 『황화집』 중의 오자에 대해 제가 관반이판서(필자주: 李廷龜)와 함께 주상께 아뢰어 일일이 가르침에 따라 수정한 뒤 원본을 도로 보내고 9건을 추가로 올립니다. 이전에 보낸 9건 중의 오자도 모두 수정하여 별지에 인쇄한 뒤 함께 보냄으로써 下執事께서 추후 산삭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바입니다. 애초 벼껴 적고 편차할 때 교정을 보았고 인출한 뒤에도 교정을 보았으나 서책을 교정하는 것은 먼지를 터는 것과 같아서 황망한 탓에 착오가 많았습니다. 하집사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무슨 수로 오류를 살렸겠습니까. 근실하고 고명한 배려에 깊이 탄복하며 감격스런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⁷⁹

78 유근은 황화수장에 참여하여 『황화집』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 만큼 이 책의 완성도에 적잖은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西垞詩集』, 吳挺緯, 〈西垞集跋〉. “外王父晉原府院君西垞柳公嘗語曰, 文人遺集之刊行, 子孫事, 吾不復望也. 幸而皇華集一編在, 後之知我者, 觀此足矣.”).

79 『西垞文集』 권6, 書, 〈答朱天使書〉. “賀至使臣之回, 辱札遠及, 區區慰慰, 不啻若披雲而觀景星, 執熱而濯清風也. 示喻皇華集中誤字, 不佞即偕館伴李判書, 啓知寡君, 一一依下教改正, 奉還原册, 添上九件. 前去九件中誤字, 竝改印于別紙附呈, 以便下執事刪改. 當其傳寫編

주지번은 유근 촉탁에 따라 직접 교정을 수행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필사 원본을 저본으로 면밀히 교정하여 오자를 찾아낸 뒤, 유근에게 편지를 보내 그 내역을 일일이 적시했다. 유근이 주지번의 교정 사항을 선조에게 보고하자 그것을 반영하여 세 번째 간본을 찍었다. 삼간본 『황화집』 9질을 주지번에게 보내면서 원본 역시 반납했고 기왕에 보낸 『황화집』 중에서 오자가 기재된 면을 별지에 찍어 보냈다. 오류가 있는 면을 교체하여 다시 장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조선에서는 『황화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 번이나 교정과 인행을 반복했거니와 세 번째 간행 시에는 연경에 머물던 중국 사신까지 교정에 참여했다.

3년 뒤 옹화(熊化)가 사시사(賜諡使)로 왔다가 귀국한 뒤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다. 전술했듯이 원집사 유근이 옹화를 전송하고 나서 『황화집』 원고의 편차와 교정을 마친 뒤 광해군에게 바치자 광해군은 교서관에 간행을 명했다. 완성된 『황화집』에는 당시 관반을 맡았고 그 직후 문형에 임명된 이정구의 서문이 실려 있었다. 조선 측에서는 『황화집』 간본을 옹화에게 부쳤다. 이정구는 『황화집』과 함께 편지를 띄우며 “감히 각본(刻本) 4폭과 『황화집』을 보내어 청람에 대비합니다.”라고 말했다.⁸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정구는 옹화에게 『황화집』 1책과 편지를 받았다.

〈山雨樓記〉 4폭과 『황화집』 10책을 모두 잘 받았습니다. 주옥과 같은 시문에 瓦石과 같은 나의 글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중략… 『황화집』 안에 오자가 많기에 일일이 교정하여 찌를 붙이고 써서 1책을 돌려보내니 자세히 살펴서 原版을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⁸¹

次之時非不校。及其印出之後非不校，校書本如拂塵，因忙又多鑄錯，倘非盛教，何得以覽察乎！深服高明致念之勤，不勝感激。”

80 『月沙集』 권34, 簡帖, 〈答熊天使〉【化○己酉僉接時】. “敢將刻本四幅，並付皇華集以送，遠備清覽.”

81 『月沙集』 권34, 簡帖, 〈附熊御史書〉. “山雨樓記四幅·皇華集十冊，俱領訖。珠玉琳琅，瓦石增愧。…중략… 皇華集內多誤字，今皆逐一改正，用浮簽書之，以一本寄還，乞細閱，將原版

『황화집』에서 많은 오자를 발견한 옹화는 일일이 찌를 붙이며 교정을 보고 나서 이정구에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원판을 고쳐서 재차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몇 년 전 주지번이 유근의 부탁을 받고 교정을 수행한 반면, 옹화는 자발적으로 오자를 바로잡았다. 이정구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황화집』 서문은 마침 寡君의 명을 받아 외람되이 지어 보았으나 文思가 거칠고 비루하여 성대한 작품들을 빛낼 수 없으니 이른바 ‘작은 무당의 신기가 절로 꺾인다.’는 격이라 늘 부끄럽고 겸연쩍었습니다. 글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적절하지 못한 글자를 써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으니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탄복했습니다. 삼가 분부대로 글자를 고치겠습니다. 이는 실로 靈丹을 한 번 문혀 짐철성금하는 것입니다. 일곱 글자를 잘못 인쇄한 것은 모두 저희들의 불찰로 생긴 실수이니 황공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즉시 西峴 柳樞相(필자 주: 柳根)과 함께 과군에게 보고하여 일일이 산정했습니다. 원래 1건 외에 9건을 더 고치고 보완하여 보내 드리며, 이미 올린 9건 중에서도 고쳐야 할 글자를 모두 인쇄하여 별지로 보내 드리니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⁸²

옹화가 교정 과정에서 찾아낸 오자는 일곱 글자였다. 당황한 이정구는 곧장 국왕에게 보고한 뒤 산정하여 이행했고 수정본 10책을 다시 보내주었다. 그리고 주지번 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간본에서 오자가 인쇄된 면을 별지에 새로 찍어 보냈다. 옹화는 『황화집』 수록 시문을 교정했을 뿐만 아니라 『황화집』에 실린 이정구의 서문 중에서 온당하지 못한 표현을 질정해

更易爲妥. 諸不一一.”

82 『月沙集』 권34, 簡帖, 〈又〉. “皇華集序文, 適蒙寡君之命, 猥有稱述, 而文思荒陋, 不足以張大盛雅, 眞所謂小巫之神氣自沮, 常用愧歎. 辭不達意, 乃至下字失宜, 致蒙台諭, 不覺竦然驚服. 謹卽依命換易, 是實靈丹一點, 點鐵成金也. 七字誤印, 無非不佞等不察之失, 惶赧無已. 卽借西峴柳樞相啓知寡君, 一一刪正, 原來一件外, 添上改補九件, 以備清覽, 而曾上九件中, 應易之字, 竝印付別紙以送, 統希台亮.”

주기도 했다.⁸³ 주지번과 옹화가 교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지 혹은 특수한 사례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황화집』 교정과 간행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⁸⁴ 한편 8년이 지난 1616년(광해군 8) 이정구는 주청사로 연경에 가서 『황화집』 36분을 옹화에게 다시 전해주었다. 8년 전 황화수창 때 이정구가 옹화의 <제이월사병조보만정>(題李月沙兵曹保晚亭)에 차운한 시편 가운데 오자가 또 있었기 때문에 『황화집』 원판을 고친 뒤 새로 찍어 가져간 것이다.⁸⁵ 이때 새로 산정하여 간행한 것은 이정구

83 명 사신이 조선 문사의 시문을 평하거나 질정해 준 사례가 선조 연간 이후에 몇 차례 보인다. 1606년(선조 39) 주지번은 崔岿이 柳永慶을 대신하여 지은 <次正使漢江觀漁韻>을 보더니 시어의 사실성과 기상을 언급하며 시어를 질정해 주기도 했다(『終南叢志』, “天使朱太史之蕃遊漢江, 作長篇一首, 使首揆柳永慶次之. 時東臯以製述官代製其句曰, ‘漢江自古娛佳客, 不能十里王京陌.’ 遠接使西桐柳根見之, 改‘王京’二字作‘長安’, 東臯微哂之. 及呈太史, 太史大加歎賞, 因拈出‘長安’二字, 謂之曰, ‘長安本非爾地, 語亦萎弱, 不若‘王京’二字之爲妥. 西桐聞而深愧之.”). 1602년(선조 34) 顧天竣과 崔廷健이 왔을 때 이호민이 원 접사를 담당했는데 당시 고천준이 첫 번째로 지은 시편은 <和壁間詠蟠松>이다. 이호민이 즉시 차운하자 고천준은 “보내준 시가 매우 뛰어나며 이전 시어를 답습하지 않았으나 몇 글자가 타당하지 않기에 거칠게 수정한다.”라는 시제로 이호민의 시를 직접 수정하여 제시해 주었다. 시제가 소략한 시평을 대신하는 셈이다(『황화집』 권35, 顧天竣, <來詩佳甚, 絕無蹈襲語, 只數字未妥, 漫爲改易>). 이호민의 시편과 고천준의 수정 시편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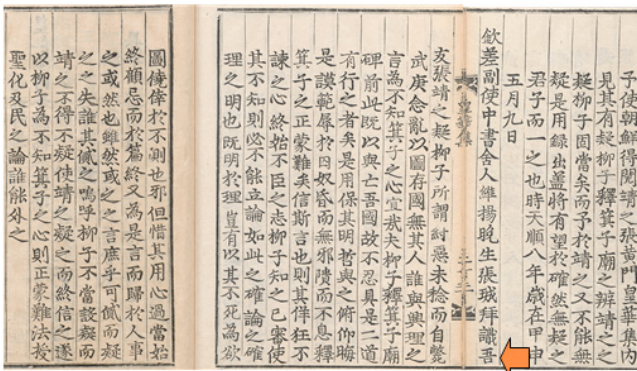
亂後人歸盡	난리 뒤에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 亂後都非故
蒼官獨自奇	푸른 소나무만 절로 기이하구나.	⇒ 蒼松仍自奇
爲當迎詔地	조서를 맞이하는 땅에 있기 때문에	⇒ 爲當迎詔地
低作折腰枝	낮게 허리 구부린 가지 모양 되었지.	⇒ 低作折腰枝
偃蓋陰猶合	낮게 드리운 일산은 그늘이 겹치고	⇒ 偃蓋陰猶合
遐齡天所私	긴 수명은 하늘이 각별이 준 것이네.	⇒ 常青天所私
莫言衢路淺	길이 좁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 托根幸衢路
贏得使華詩	중국 사신의 시를 넉넉히 얻었으니.	⇒ 贏得使華詩

고천준은 소나무의 불변성, 시상의 전후 승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어를 수정했다. 이호민은 필시 자존심이 꺾였을 터이고 고천준은 그것을 의도했을 것이다.

- 84 동일한 맥락에서 1608년 간본 『황화집』의 마지막 책 맨 뒷장에 찍혀 있는 정사룡의 짤막한 문장 가운데 “좌우께서 열람하여 교정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라는 기술이 두 사신에게 1차 간본 『황화집』의 교정을 부탁하는 것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 85 『월사집』 권34, 簡帖, <寄熊御史>【丙辰朝天時】, “皇華集三十六本, 今敢呈覽內, 保晚亭仰

개인의 주선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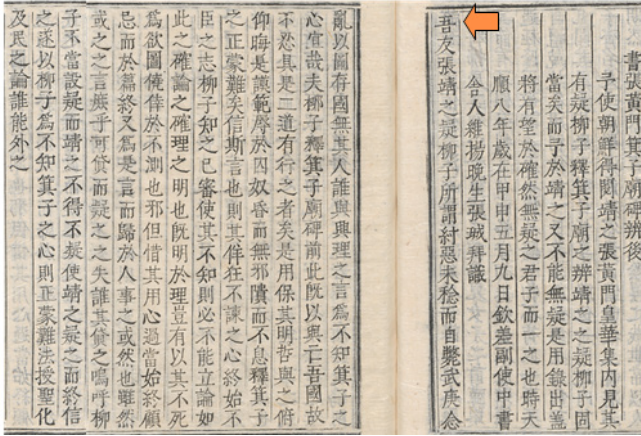
먼지를 터는 것과 같은 것이 교정이라는 유근의 말처럼 홍문관대제학, 원접사, 종사관 등 조선 최고의 엘리트가 교정에 매달려도 판각상의 오류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웠다. 예컨대 단회 『황화집』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464년(세조 10) 장성(張城)이 찬술한 <서장황문기자묘비변후>(書張黃門箕子廟碑辨後)는 찬자와 본문이 분리되지 않았고⁸⁶ 1537년 오희맹이 지은 <龍泉道中迫暮，從者明燦，延燒道松，有感而賦之>의 ‘迫暮’는 단회 『황화집』에 ‘泊暮’로 오각되어 있으며⁸⁷ 오희맹이 한강루에서 읊시 2편을 짓고 나서 적은 후지(後識)도 통사구조를 고려했을 때 오류가 분명하다.⁸⁸ 이밖에 『황화집』의 판본상 오류는 매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⁸⁹



[그림 3] 1608년 간본 『황화집』 下, <予使朝鮮… 而一之也>

次高韻，拙稿中有錯印一字，恨其時未及刪正也。今於原板更易以進。”

- 86 1608년 간본 『황화집』(K4-377) 下. 본래 제목이 없었으나 통합본 간행 시 제목을 설정해 붙였다.
- 87 1608년 간본 『황화집』(K4-366) 권1.
- 88 1608년 간본 『황화집』, 오희맹, <國王開宴漢江樓，遣諸臣執事，是日雨而復晴，蓋亦天從王命也。已而放舟中流，東南盡美，偶成二律，次雲岡學士韻>。“燈下草草，聊紀遊迹，工不無遑虞之矣。” 필자의 우견으로 추정컨대 “工不無遑虞之矣”는 “乃無不遑之慮” 정도의 오류로 추정된다.
- 89 서거정의 1476년 황화수장이 수록된 『황화집』의 판본상 오류에 대해서는 김덕수(2021), pp. 195-196 참조.



[그림 4] 통합본 『황화집』 권7, <書張黃門箕子廟碑辨後>.

황화수창에 참여했던 조선 문인의 문집을 간행할 때 『황화집』 수록 작품을 신는 것은 당연지사다. 『황화집』 수록 작품을 문집에 수록하면서 어색하거나 그릇된 글자를 수정한 경우가 여럿 보인다.

- ① 我若乘槎泛湖去, 乍當借作匡廬看. 『황화집』 권24, 薛廷寵
 ⇒ 我若乘槎泛湖去, 爲君借作匡廬看. <錦湖贈林禮曹亨秀>⁹⁰ 미련
- ② 已遣輕舟同一葦, 何勞百尺臥長虹. 『황화집』 권31, 歐希稷 시 차운
 ⇒ 已遣輕舟同一葦, 何勞百尺掛長虹. 박순, <次歐天使大定江韻>⁹¹ 경련
- ③ 榦屈枝翻度歲來, 及肩欹蓋老陰開. 『황화집』 권32, 成憲 시 차운
 ⇒ 榦屈枝翻度歲來, 及肩欹蓋老陰開. 박순, <次成天使車輦館觀松韻>⁹² 수련

90 임형수, 『錦湖遺稿附錄』, 「諸賢酬唱」.

91 박순, 『思菴集』 권3.

92 박순, 『思菴集』 권3.

④ 櫟社曾聞能獨壽, 匠斤今見亦空廻.

⇒ 櫟社曾聞能獨壽, 匠工今見亦空廻. 박순, 〈次成天使車輦館觀松韻〉 정려

①은 부사 설정충이 임형수에게 지어 준 시편을 임형수 문집에 수록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시어를 수정한 경우이고⁹³ ②~④는 『황화집』에 실린 박순(朴淳)의 시편 중에서 자형이나 음가가 비슷한 탓에 잘못 판단된 글자를 교감하여 『사암집』에 수록한 경우다.⁹⁴ 『황화집』 간행 시 교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한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1537년 황화수창에 초점을 맞추어 공용경과 오희맹, 두 사신의 시문 찬술 및 황화수창의 특징적 면모를 시기순으로 검토한 뒤, 당시 제작된 시고의 형태, 시고의 작성과 등사 과정, 시고의 교정 및 간행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두 사신은 한양 도착 전까지 많은 시편을 지었으나 원접사 일행과 수창하지 않았다. 조선 국왕을 만나 조서를 반포하기 전에 조선 신료와 수창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통상 정사가 시편을 제작하면 부사가 화운하여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두 사신은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제재로 시를 지으면서도 상이한 운자로 각자의 작품을 주로 찬술했고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지도 않았다. 오희맹이 동일 글자를 두 번 사용하여 운각으로 삼자, 심언광과 정사룡은 중첩된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어 시를 지었다. 명 사신의 착오를 묵인하지 않은 것이다. 심언광은 이전

93 『금호유고부록』에 수록된 해당 시구 아래에 “爲君, 皇華集作乍當”이라는 주석이 보인다.

94 『사암집』에 수록된 해당 시편의 書眉에 “掛, 皇華集作臥”; “蟠, 皇華集作翻”; “工, 皇華集作斤”이라고 각각 판각되어 있다.

사신의 칠언배율 60운에 차운하여 전별시를 지었는데 당시 황화수창에서 이루어진 조선 문인 최초의 선창 시도다. 그의 문학적 자부심과 대결의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사신들이 귀국길에 시문 찬술에 주력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문신 두 명을 추가 파견하여 원접사의 수창을 돕게 했다. 사신들은 사행에 나서기 전부터 『황화집』을 통해 조선 문인의 범주와 수준을 가늠하고 있었다. 황화수창 자리는 양국 문사가 필력을 뽐내는 현학의 공간이자 조선이 국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사신은 바쁜 일정 탓에 시문을 짓지 못한 경우에는 회정 길에 틈틈이 완성하여 의주에서 반송사 일행에게 건네 주었다. 물론 『황화집』 수록을 염두에 둔 것이다.

황화수창은 시고를 통해 이루어졌고 매 시고는 찬술 시기에 따라 정리되었다. 두 사신은 각자의 시편을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수시로 갈무리했고 원접사는 『황화집』 간행을 위해 시편들을 수시로 정리했다. 단회 『황화집』과 1608년 간본 『황화집』에는 원시고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구현된 반면 1773년 통합본 『황화집』은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시고 형태가 상당 부분 해체되고 유의미한 정보가 누락되기도 했다. 사신이 시편을 찬술하면 두목(頭目)이 옮겨 적는 일을 전담했다. 학문적 조예가 없던 두목이 대필했기 때문에 오류가 산재할 수밖에 없었고 양측 모두 원고 교정에 만전을 기했다. 원접사 정사룡이 황화수창 과정에서 사신에게 보여주는 시편 역시 서사관이 대필했다. 한시 제작과 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황화수창 현장에서 다수의 서사관이 활약했다.

사신들은 귀국 직전 『황화집』 간행에 적잖은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때는 황화수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공용경은 의주에서 종종에게 편지를 쓰며 정사룡에게 교감을 일임할 것을 부탁했고 국경을 넘은 후에도 정사룡에게 누차 서신을 띄워 면밀한 교감을 당부했다. 정사룡은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황화수창 원고의 편차와 교정을 진행하여 불과 칠팔일 만에 연로에서 작업을 마친 뒤 서사관에게 정사를 맡겼다. 원접사 역할에는 『황화집』 원고의 편차와 교감도 포함되었다. 정사룡이 복명하며 완성된 정사

본을 올리면 종종은 정사본을 교서관에 내려 간행을 명했다. 이후에도 『황화집』의 완결성을 도모하고자 홍문관대제학, 혹은 원접사와 종사관들이 교정에 참여했다. 당시 정사본은 수본(手本)에 의거하여 원고를 수정했으며 『황화집』 1차 간본을 중국에 보내면서 사신의 열람과 교정을 기다렸다. 주지번과 응화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류로 인해 『황화집』을 여러 차례 간행하기도 했고 이미 귀국한 사신이 『황화집』 교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응화는 『황화집』에 실린 이정구의 서문 중에서 온당하지 못한 표현을 질정해 주기도 했다. 『황화집』 간행 시 교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분명하지만 원고 자체가 불완전하고 간행 일정이 촉박했으므로 완전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참고문헌

자료

權應仁, 『松溪漫錄』
 金得臣, 『終南叢志』
 朴淳, 『思菴集』
 魚叔權, 『稗官雜記』
 柳根, 『西垞文集』
 李肯翊, 『燃藜室記述』
 李廷龜, 『月沙集』
 李荇, 『容齋集』
 林亨秀, 『錦湖遺稿附錄』
 許筠, 『惺所覆瓿藁』
 許筠, 『鶴山樵談』

『天使一路日記』(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이귀178)

『皇華集』(1608년 간본, 장서각 소장, K4-366)

『皇華集』(1608년 간본, 장서각 소장, K4-377)

『皇華集』(1773년 간본, 장서각 소장, K4-38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논저

- 김기화(2008), 『『皇華集』의 編纂과 版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덕수(2021), 「서거정의 황화수창과 문학적 대결의식」,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 김덕수(2020), 「조선의 對明 유학 요청과 중국 유학에 대한 조선 문인의 견해」, 『한국실학연구』 39호, 한국실학학회.
- 김덕수(2001), 「朝鮮文士와 明使臣의 酬唱과 그 樣相」,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학회.
- 김은정(1999), 「庚午本 『皇華集』 편찬경위와 詩文酬唱의 의미」,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 신태영(2010), 「『皇華集』 소개 한시의 특징과 양상: 명 사신과 조선 집반사의 수창」,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 이종목(2020), “Establishing Friendships between Competing Civilizations: Exchange of Chinese Poetry in East Asia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Rethinking the Sinosphere: Cover art depicts “brush conversations” (筆談 or 筆話) between scholars*: Cambria Press.

원고 접수일: 2022년 1월 11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월 25일, 게재 확정일: 2022년 2월 8일

ABSTRACT

Writing and Publication of Hwanghwasuchang Manuscript Poems

Kim, Deok-su*

This paper categorized the manuscript poems written for Hwanhwasuchang according to period of writing. There were found to be many errors in the poetry sections of the envoys because a *dumok* who did not have a profound knowledge of literature had ghostwritten them and both sides aimed at perfection in proofreading the manuscripts. Many transcriptionists were active at the event of Hwanghwasuchang because Chinese poems were simultaneously written and arranged. Gong Yong Qing wrote a letter to Jungjong of Joseon and ask him to assign a collator to Jeong Saryong. And he wrote several letters to Jeong Saryong and asked him to collate them thoroughly even after crossing the border. Jeong Saryong finished work on the main streets just in 7 to 8 days by editing and proofreading the manuscripts of Hwanhwasuchang on the way to Hanyang. As Jeong Saryong reported and offered the original copy completed to Jungjong of Joseon, He gave and ordered *gyoseogwan* to publish it. Jeong Saryong then revised the manuscripts based on handwriting text, sent the first published book of *Hwanghwajip* to China, and waited until the envoys read and proofread it. *Hwanghwajip* was

* Senior 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ublished several times due to errors in the publication. And the envoys who already returned to their own country directly participated in proofreading *Hwanghwajip*.

Keywords *Hwanghwajip*, Hwanghwasuchange, Receptionist for Envoy, Manuscript Poems, Compilation, Correction, Publication